

# 남악 생태도시 잠재적 거주자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habitants Who Are Expected to Live in the New Eco-City of Namak

박정희\*  
Park, Jeonghee

곽인숙\*\*  
Kwak, Insuk

###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of Namak Eco-city, a willingness to move to an ecological city and their related variables.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given to 491 residents who live in Mokpo, Kwangju and Muan in Chollanam Province. The awareness of Namak Eco-city was medium level and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not aware of tha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on the awareness of Namak Eco-city.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was the awareness of eco-city. Thirty eight percent of the respondents were willing to move to Namak Eco-City. Two variables were related with willingness to move to the city. Those who were aware of an eco-city and had more commuting-oriented housing value had more willingness to move to the city.

Keywords : eco-city, awareness of Namak Eco-city, willingness to move to an eco-city

## I. 서 론

새롭게 전개되는 지구 환경문제의 해결과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태도시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생태도시는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도시의 다양한 활동과 구조를 자연의 생태계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의 원칙에 가깝도록 계획, 설계하여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든 도시를 말한다(김귀곤, 1999). 생태도시에서는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 즉,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갈 수 있고, 외부 배후지 혹은 타 지역과의 상호연관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자치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최근 전라남도에서는 새로운 도청소재지를 건설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신 도청 소재지를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로 확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바, 이 신도시 개발계획에서는 생태도시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본적인 개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였다. 이 남악 신도시는 2000년부터 향후 20년간 개발면적 14.8 Km<sup>2</sup>(약 447만평), 계획인구 15만명(약 4만3천세대)의 해양생태도시로 개발될 계획이다(www.provin.chonnam.kr).

본 연구는 전라남도에서 남악 신도시를 생태도시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 도시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남악 생태도시 개발여부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생태도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남악 생태도시로의 이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남악 생태도시의 개발이 완료될 경우 이 도시로 이주할 잠재성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생태도시개발의 필요성

거대한 도시가 생존해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과 자원을 필요로 한다. 대규모의 인구가 거주하기 위해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과 같은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된 시설들이 필요하고, 대규모의 유통시설과 운송 및 통신수단 등이 필요하다. 도시에서의 생산과 소비생활을 위해서는 도시외로부터 자원의 투입(input)을 필요로 하고 그 투입된 자원을 사용한 결과(output)를 수반하게 된다.

한국사회의 양적인 경제성장은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 평을 받을 만큼 급속한 것이었다. 도시화 역시 경제성장과 함께 궤를 같이하여 세계 도시화의 평균을 두 배 가까이 능가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1960년에 농촌인구가 전 인구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정회원, 목포대학교 소비자동주거학과 부교수

\*\*정회원, 우석대학교 의상주택학부 주택전공 교수

있었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오�히려 도시인구가 70%로 반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전 국민의 대다수가 도시 공간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몇몇 주요도시가 급팽창하여 주요 6대 도시에는 전 인구의 절반정도가 몰려 있는 심한 인구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생태도시(ecopolis 또는 eco-city), 녹색도시, 환경지자체, 환경보전형 도시 등의 개념은 모두 '지속가능한 도시'와 유사한 개념들로서 현재의 도시적 생활의 구조와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낱말들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개념을 선호하는 까닭은 그것이 지금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서는 도시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는 절박한 인식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생태도는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다.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은 양적 추구에서 질적 추구로, 문제해결형에서 구조 개편형으로, 생산기반중시에서 생활환경중시로 변화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지속불가능한 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창조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 2. 생태도시개발의 전개 과정

인간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유엔은 1972년에 국제환경문제에 관한 스톡홀름회의라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주관하였다. 이 회의에서 "유엔 인간환경선언"을 통해, 오염 원인자 부담의 원칙(PPP)에 입각한 국제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그 후 스톡홀름국제회의의 20주년을 기념하여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의 주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가능케 하는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었다. 이 회의는 그 동안 대립의 개념으로만 여겨왔던 환경보존과 경제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인데 그 중심개념이 지속가능한 개발(SD)이었다. 이 개념은 자원의 한계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또는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할 때만이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보호, 미래를 위한 계몽, 삶의 질과 공평성이라고 하는 4가지 가치를 묶는 개념으로 환경적, 개발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관심을

통합하는 새로운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있다. "의제 21(agenda 21)"으로 약칭되는 21세기 지구환경보전 강령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다.

지속성이 무엇을 수반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도시개발과정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최근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생태도시이다(김귀곤, 1999).

생태도는 기존의 도시계획, 설계와는 달리 계획과 설계의 각 단계에서 설계 결정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접근은 도시전체의 개발계획, 주거지역의 배치, 그리고 주택자체의 설계와 상세 등에 적용되어야 하며 건설에 있어서도 각각의 수준의 환경결과가 고려되는 등(대전광역시, 1996) 생태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생태적 계획이란 인간과 관련된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자원관리를 함에 있어 생태체계에 바탕을 두고, 자연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선정하고,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사회의 발전계획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전광역시와 동해시에서 생태도시 조성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있으며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환경도시가 계획되는 등 생태도시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만 아직 생태도시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 3. 주거이동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거이동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Rossi(1955)의 주거이동과 주거불만의 상호관계 연구이다. 각 가족은 속해 있는 생활주기 단계에 따라 주택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르고, 가족의 가치가 생활주기에 따라 다르므로, 가정생활주기는 가족의 주거선택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Soen 1979, 박인숙 1989).

최근의 연구에서 주택소유권의 부재가 이동의 열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주택소유형태가 주거이동의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지적하면서 주택입차자는 이주자로, 주택소유자는 정주자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정성자(1978)의 연구에서는 주택 선택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배경적 요인의 하나로서 주택 소유형태를 들었으며, 김미희(1983)의 연구에서도 입차자는 가족의 특성에 무관하게 소유자보다 높은 이동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회계층은 하나의 준거집단으로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정성자(1978)의 연구에서 주거선택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 중 사

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기호, 선호 등의 변화에 따라 주거수요가 변화되며, 가족생활주기의 진전에 따라 가구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대부분의 가구들은 향상된 주거서비스를 받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

주거가치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주거상황에 대해 지니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개념으로서,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주거만족도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주거조절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주거가치는 가족들이 주거생활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는가, 즉 주거목표, 또는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자원의 선택이나 행동방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학자에 따라 다양한 분류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G.H. Beyer는 이러한 가치의 측면을 경제성, 가족중심주의, 평등주의, 여가, 신체적 건강, 위신, 미, 자유, 정신적 건강의 9가지의 측면으로 분류하였으며, Culter는 미, 안락, 편리성, 입지, 건강 및 안전, 개인 및 가족, 사생활, 경제성, 사회성, 위신으로 분류하였다(윤정숙 외, 1995).

H.S. Stoeckerler팀은 Beyer의 주거가치를 근거로 하는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이들 주거가치가 주거조절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도구임을 증명하였다(이경희, 1984).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남악 생태도시로의 이주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대상을 인근지역 거주자로 파악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남악 생태도시 개발여부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생태도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남악 생태도시가 개발 완료될 경우 이 도시로 이주를 희망하는 지, 남악 생태도시로의 이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도시에 대한 인식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남악 신도시를 생태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가?

남악 생태도시 개발에 대한 인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남악 생태도시 개발시 희망하는 계획의 방향은 무엇인가?

넷째, 남악 신도시가 생태도시로 개발된다면 그 곳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가?

남악 생태도시로 이주할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2. 변 수

이러한 연구문제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 변수는 남악 생태도시 개발에 대한 인식, 생태도시 개발의 계획방향, 남악 생태도시로의 이주 의사 등이다. 생태도시에 대한 인식은 생태도시에 대한 앎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생태도시 개발의 방향은 생태도시 계획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을 조사하였다. 남악 생태도시로의 이주 의사는 이사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변수로는 일반적 변수인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계소득, 주택소유여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 환경교육의 경험여부와 사회심리학적 변수인 생태지향적 가치, 주거가치, 환경지식의 수준 등을 선정하여 이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생태지향적 가치수준은 생태주의 성향과 편이주의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1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주거가치는 베이어(Beyer)와 커틀러(Cutler)의 주거가치판의 9개 측면을 포함시켰다. 환경지식의 수준은 환경오염이나 생태계에 관한 20개의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 3. 연구방법

#####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남악 신도시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목포와 무안군 거주자, 그리고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이주할 가능성이 있는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본인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예비조사를 거쳐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0년 7월 15일부터 30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총 520부를 배포하여 506부를 회수하였는데 그 중 내용이 불충실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자료로 491부를 사용하였다.

##### 2)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환경의식에 대한 일반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생태도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성별	1=여자 0=남자
연령	세
교육수준	조사대상자의 교육년수
직업	
무직/은퇴/주부	1=무직/은퇴/주부 0=비해당
봉급생활	1=봉급생활자 0=비해당
자영업	1=자영업자 0=비해당
전문직	1=전문직 종사자 0=비해당
가계소득	가계의 월평균소득
주택소유	1=자가 0=임차
현재 거주 주택의 유형	1=공동주택 0=단독주택
생태지향적 가치	1=전혀 그렇지 않다 3=조금은 그렇다 5=매우 그렇다
환경교육	1=환경교육 경험 유 0=환경교육 경험 무
환경지식 (20개 항목)	1=전혀 모른다 3=그저 그렇다 5=잘 알고 있다
주거가치(9개 항목)	1=전혀 중요하지 않다 3=그저 그렇다 5=매우 중요하다
생태도시에 대한 인식	1=전혀 모른다 3=그저 그렇다 5=잘 알고 있다
남약생태도시 개발	1=알고 있다 2=모른다
남약생태도시개발 방향	1=자연환경의보존 2=에너지와 자원절약 3=도시민이 즐길 자연요소 4=공해가 없는 건강한 도시
남약신도시로의 이주의사	1=이주의사가 있다 2=이주 의사가 없다 3=모르겠다

으며, 남약 생태도시 개발여부 인식과 남약 신도시로의 이주의사는 이항변수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Logistic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 및 Logistic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다변량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이 10 미만으로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과해석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성별은 남자가 거의 반반씩으로 남자가 50.1%, 여자가 49.9%였다. 교육수준은 조사대상자의 46.2%가 고등학교 졸업, 53.8%가 대학교 이상의 졸업으로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았다. 조사대상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491)

변수	범주	N	%
성별	남자	246	50.1
	여자	245	49.9
교육수준	고졸	227	46.2
	대학이상	264	53.8
직업	무직/은퇴/주부	154	31.4
	봉급생활자	210	42.8
	자영업자	92	18.7
	전문직종사자	35	7.1
주택소유	임차	116	23.7
	자가	375	76.3
주택의 유형	단독주택	161	32.8
	공동주택	330	67.2
환경 교육	경험 있음	122	24.7
	경험 없음	369	75.3
변수		평균	S.D.
연령(세)		40.35	8.17
가계소득(만원/월)		204.83	110.28

자의 직업은 봉급생활자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은퇴/주부의 경우가 31.4%, 자영업자가 18.7%, 전문직 종사자가 7.1%였다. 주택소유여부는 자가 주택소유자가 76.3%, 임차가는 23.7%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공동주택이 67.2%, 단독주택이 32.8%로 공동주택 거주자가 2배 정도 많았다.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24.7%,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이 75.3%로 환경교육의 경험이 훨씬 적었다.

남약 신도시를 생태도시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반 정도인 51.7%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약 신도시를 생태도시로 개발할 경우 이주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 43.3%였으며, 이주의사가 있다는 집단이 38.3%, 이주의사가 없다는 집단이 18.4%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0.35세였으며, 월평균 가계소득은 204.83만원이었다.

##### 2. 조사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

생태지향적 가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3.76점으로 중간보다 높았으며, 환경지식의 수준은 3.52점, 생태도시에 대한 인식수준은 중간수준으로 3.0점이었다.

주거가치의 수준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9개 항목 중 안전성에 대한 가치가 가장 높아 평균 4.49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나무가 많고 조용한 환경이 4.48, 자녀양육에 좋은 조건과 지역의 공해나 소음 정도가 각각 4.40, 직장이나 도심과의 교통편리가 4.07, 이웃사람

들이 4.04, 외부로부터의 프라이버시 확보가 3.94, 주택 내·외부의 미적인 요소가 3.91, 경제성이 3.67점으로 안전성과 주거환경의 질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가치를 가장 낮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생태도시에 대한 인식수준과 영향요인

생태도시 인식의 수준은 평균 3점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이었다<표 3>. 생태도시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생태도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조사대상자의 직업,

표 3. 조사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 (N=491)

변 수	M	S.D.
생태지향적 가치	3.76	0.52
환경지식	3.52	0.62
생태도시인식	3.00	0.72
주거가치		
범죄와 재해로부터의 안전	4.49	0.68
나무가 많고 조용한 환경	4.48	0.64
자녀양육에 좋은 조건	4.40	0.68
지역의 공해나 소음 정도	4.40	0.60
직장이나 도심과의 교통편리	4.07	0.76
마음에 드는 이웃 사람들	4.04	0.81
옆집이나 외부로부터의 프라이버시 확보	3.94	0.81
주택내·외부의 미적인 요소	3.91	0.79
자금 사정이나 투자가치	3.67	0.89

표 4. 생태도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 인	B	β
성별	1.304	.058
연령	.244	.011
교육수준	-.893	-.040
직업(무직/은퇴/주부)		
봉급생활자	.186	.129*
자영업자	1.106	.108*
전문직종사자	-.024	-.024
가계소득	.698	.031
주택소유(임차)	.161	.099*
주택의 유형(단독주택)	-.661	-.029
생태지향적 가치	1.249	-.008
환경지식	1.524E-02	.232***
환경교육	.180	.100*
좋은 자녀 양육조건	.145	.135*
상수	1.157***	
R <sup>2</sup>	.094***	

\*p<.05 \*\*p<.01 \*\*\*p<.001

주택소유여부, 환경교육의 경험유 무, 환경지식의 수준 이, 주거가치 등이었으며,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환경지식의 수준(β = .232)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주거가치 중 좋은 자녀양육조건(β = .135), 사무직(β = .129), 자영업(β = .108), 환경교육의 경험(β = .100), 주택소유여부(β = .099)였다. 즉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와 관련된 환경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생태도시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주거가치 중 좋은 자녀양육의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생태도시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는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생태도시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이 보다 더 생태도시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생태도시 개발의 계획이 있는 지역에서는 환경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지거나 홍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지식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생태도시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남악 신도시의 생태도시 개발 계획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악 신도시를 생태도시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반 정도인 52.3%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신도시의 생태도시 개발 계획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개발계획 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계소득, 주택소유여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생태지향적 가치, 주거가치, 환경지식의 수준, 환경교육여부, 생태도시 인식을 포함한 사회심리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Logistic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남악 신도시를 생태도시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아는가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는 생태도시 인식 뿐 이었다. 즉 생태도시가 무엇인가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남악신도시를

표 5. 남악 신도시 생태도시로 개발인지와 이주 의사

변 수	범 주	N	%
남악 신도시 생태도시로의 개발인지 여부	안다	254	52.3
	모른다	232	47.3
남악생태도시로의 이주 의사	이주 의사 있다	181	38.3
	이주 의사 없다	87	18.4
	모르겠다	205	43.3

생태도시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 결과는 생태도시의 개발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주예정자나 근처의 거주자에게 필히 생태도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5. 희망하는 남악 생태도시 개발의 방향

남악 신도시가 생태도시로 개발 될 경우 희망하는 계획의 방향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가장 많이 찬성하고 있어 조사대상자의 43.5%가 가장 중요한 개발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매연이나 공해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2.1%였으며,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사대상자의 6.8%로 가장 적었다<표 7>. 따라서 생태도시의 개발 계획에서 자연환경의 보존을 최대로 하고, 공해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설계지침의 적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산책을 위한 오솔길의 계획, 불필요한 도로

의 포장을 최소화, 생활타리벽, 전통마을의 건축기법 도입, 갈대숲을 이용한 하수처리 기법 등의 적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박인숙 외(2000)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태도시의 개발을 희망하지만 지나치게 개인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환경보존을 위한 지침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계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거나 쾌적한 환경은 아니지만 개인의 인내심이나 생태중심의 가치가 요구되는 설계나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설계 의도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6. 남악 신도시 이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악 신도시가 생태도시로 개발된다면 이주할 의사가 있는 집단, 이주할 의사가 없는 집단, 아직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의 이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사회심리적인 변인들 중 분산분석을 통해 영향력이 예측되는 변수들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남악 신도시를 생태도시로 개발할 경우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81명(38.3%)이었으며<표 5>,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거가치 중 교통편리성, 남악 신도시를 생태도시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인지의 2변인이었다. 즉 남악 신도시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직장이나 도심과의 교통편리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거나, 생태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집단이었다.

남악 신도시로 이주의사가 전혀 없는 집단은 87명(18.4%)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가소유, 교통편리성, 프라이버시 확보, 자금 사정이나 투자가치, 생태도시 인식 등이었다. 즉 현재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집단은 이주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이 결과는 김미희(198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교통의 편리성이나 프라이버시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반면, 자금사정이나 경제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생태도시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집단이었다.

남악 신도시로의 이주의사가 불분명한 집단은 가장 많은 205명(43.3%)이었는데 이들은 프라이버시 확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거나, 남악 신도시를 생태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인 것이 드러났다. 생태도시나 남악 신도시 개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집단은 이주를 희망하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은 이주할 의사가 없거나 이주의사가 불분명한 이러한 결과는 남악 신도시의 생태도시 개발에 대한

표 6. 남악 신도시의 생태도시 개발 계획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 수	Parameter Estimate
성별	-.444
연령	.009
교육수준	-.205
직업(무직/은퇴/주부)	
봉급생활자	-.393
자영업자	-.222
전문직종사자	-.031
가계소득	-.001
주택소유(임차)	-.065
주택의 유형(단독주택)	.208
생태지향적 가치	-.004
환경지식	-.001
환경교육	-.308
생태도시에 대한 인식	1.958***
상수	-4.073**
-2 Log Likelihood X <sup>2</sup>	333.676

\*p<.05 \*\*p<.01 \*\*\*p<.001

표 7. 희망하는 남악 생태도시의 개발 방향

개발 방향	N	%
자연환경의 보존	210	43.5
에너지와 자원절약	33	6.8
도시민이 즐길 자연요소	85	17.6
공해가 없는 건강한 도시	155	32.1

표 8. 생태도시로의 이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 인	Parameter Estimate		
	이주 의사가 있는 집단 (181)	이주 의사가 없는 집단 (87)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 (205)
성별	-0.292	.374	.051
직업(무직/은퇴/주부)			
봉급생활자	.369	.287	-0.472
자영업자	-0.10	.189	-0.052
전문직종사자	.243	-0.217	-0.060
가계소득	-0.001	.002	.001
주택소유(임차)	-0.193	.699*	-0.180
주택의 유형(단독주택)	.242	.035	-0.176
생태지향적 가치	.034	.014	-0.033
환경지식	-0.002	-0.004	.001
환경교육	.052	.086	-0.184
직장이나 도심과의 교통편리	.393*	-0.553**	-0.052
프라이버시 확보			
자금사정이나 투자가치	-0.129	-0.466*	.355*
생태도시에 대한 인식	-0.013	.467**	-0.228
남악신도시	.217	-0.566**	.131
생태도시로의 개발인지 상수	.924***	-0.268	-0.723***
-2 Log Likelihood X <sup>2</sup>	-4.754**	-1.790	3.321

\*p<.05 \*\*p<.01 \*\*\*p<.001

홍보가 부족하였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즉 남악 신도시가 생태도시로서 성공적으로 거주자들이 이주하여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생태도시에 대한 환경교육과 더불어 남악 신도시의 생태도시 개발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에서 남악 신도시를 생태도시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 도시에 이주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태도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남악생태도시가 생태도시로 개발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남악 생태도시가 개발완료될 경우 이주의사를 조사함으로써 남악신도시의 잠재적 거주자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의 요약과 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 중 생태지향적 가치와 환경지식의 수준은 중간보다 약간 높았으며, 생태도시에 대한 인식수준은 중간수준이었다. 주거가치의

수준은 9개 항목 중 안전성에 대한 가치가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인 가치를 가장 낮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남악 신도시를 생태도시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반 정도인 51.7%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악 신도시를 생태도시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아는가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는 생태도시 인식뿐이었다.

3. 생태도시에 대한 인식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환경지식의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주거가치 중 좋은 자녀양육여건, 직업, 환경교육의 경험, 주택소유여부였다. 즉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와 관련된 환경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생태도시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주거가치 중 좋은 자녀양육의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생태도시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는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생태도시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이 보다 더 생태도시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생태도시 개발의 계획이 있는 지역에서는 환경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지거나 홍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지식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생태도시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남악 신도시를 생태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가장 많이 찬성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매연이나 공해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로 개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태도시의 개발 계획에서 자연환경의 보존을 최대로 하고, 공해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설계지침의 적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5. 남악 신도시를 생태도시로 개발할 경우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81명(38.3%)이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거가치중 교통편리성, 남악 신도시를 생태도시로 개발여부 인식이었다. 즉 남악 신도시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직장과의 교통편리성을 높이 평가하거나, 생태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집단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생태도시나 남악 신도시 개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집단은 이주를 희망하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은 이주를 꺼리거나 이주의사가 불분명한 것은 남악 신도시의 생태도시 개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남악 신도시가 생태도

시로서 성공적으로 거주자들이 이주하여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생태도시에 대한 환경교육과 더불어 남악 신도시의 생태도시 개발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조사와 실제 생태도시로 개발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생태도시에서의 개발계획이나 건설의도가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 도시나 주택이 생태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생태도시에서 거주자들의 역할과 거주자로서의 만족스러운 부분과 불만족스런 부분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박인숙(1989) “도시가구의 주거이동 유형이 가정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7(2), 127-144.
2. 박인숙, 박정희(2000) “생태도시에 대한 인식과 이주의사”, 대한가정학회지, 38(12), 177-188.
3. 김귀곤(1999), 남악신도시의 국제해양생태 도시조성방안 대토론회, 목포대학교 연안환경연구소 15회 학술세미나.
4. 김미희(1983) “주거이동 지향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1(3), 103-114.
5. 대전광역시(1996), 대전광역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 연구,
6. 윤정숙, 이경희, 홍형욱(1995) 주거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7. 이경희(1984) “도시가구의 주거이동 행동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51-164.
8. 정성자(1978) “주거 선택에 관한 행동 과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간행)
9. 주거학 연구회(1999), 새로 쓰는 주거문화, 교문사
10. 주택산업연구원(2000), 환경친화적 도시 근교 주거단지 개발기법, 도서출판 주택 산업연구원
11. 홍성희(1984) “주거가치관에 따른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12. Rossi, P.H.(1955) Why families move, Glencoe III. Free Press. <http://www.provin.chonnam.kr/namak/newcity>